

아난은 번뇌 끊고 아라한 되어 교법을 결집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9)

가섭과 아난의 불전 결집 이야기

여러 천인이 가섭의 발에 예배하면서 계승으로 말했다.

“대덕께서는 아십니까? / 법의 배는 깨지려 하고 / 법의 성은 무너지려 하며 / 법의 바다는 마르려 하고 / 법의 당기는 넘어지려 하며 / 법의 등불은 꺼지려 하고 / 설법하는 사람은 떠나려 하며 / 도를 행하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 악한 사람은 더욱더 성합니다. 마땅히 큰 사람으로써 / 부처님의 법을 세우셔야 하시리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였다. 부처님이 몸소 길을 걸으며 전해주시던 법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법은 점점 대중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섭은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승기집 동안에 얻기 어려운 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오직 3장(藏)을 결집하는 길만이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리라. 그리하면 미래의 세상 사람들이 법을 받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생을 가없이 여기어 법을 설하셨다. 우리들도 이를 이어받아 교화해야 할 것이다.”

가섭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종을 치면서 계승으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 만약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니 / 열반에 들지 마라.”

종소리와 가섭의 계승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이르렀으므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신통력을 얻은 제자들이 모두 가섭에게로 모였다. 가섭은 큰 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법을 아는 제자들도 점차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처님 법이 소멸될 것이니 미래의 중생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지혜의 눈을 잃었으니 이제 어려움으로 노니 떨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법장의 결집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 다음에 뜻하는 대로 열반에 드십시오.”

가섭이 3장을 결집하기 위해 오백 사람을 선정했는데, 아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라한이었다. 가섭은 여름 석 달 안개 동안 결집하기로 하고 모인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번뇌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난만이 번뇌가 있으므로 가섭은 아난을 경책하며 말했다.

“여섯 가지 돌길라죄(突吉羅罪·몸과 입으로 지은 가벼운 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비구 250계 중 백중학법을 저지른 죄를 주로 가리키며, 또한 율장의 건도부에 규정된 비구의 임무를 게을리 한 죄 등이 포함된다.)를 범했구나. 스님들 앞에서 모두 참회하여야 한다.”

아난은 이내 가르침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오로 아개의 가사를 벗어 메고 가죽신을 벗고서 참회하는데, 가섭이 스님들 사이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끌어 밖으로 내보내면서 말했다.

“그대는 마땅히 번뇌를 다 없애야 한다. 만약 번뇌가 남아서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아라한들과 함께 의논했다.

“누가 율장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아니로두가 말했다.

“사리불은 바로 두 번째의 부처님이십니다. 교범바제도 율장을 잘 아십니다. 지금 천상의 시리사수 동산에 계시니 시자를 보내 내려오시라 하십시오.”

가섭이 마음속으로 교범바제에게 말했다.

도를 얻어 깨치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 밤에 승당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며 가섭을 부르자 가섭이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제가 오늘밤에야 번뇌가 다하였습니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문의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오라.”

아난이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가 가섭을 뵈니, 가섭은 아난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았다. 가섭이 아난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도를 얻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알고 있습니다.”



삼화·강병호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이 지금 모두 염부제에 모였습니다. 승가에 큰 불사가 있으니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교범바제 역시 마음 속으로 말했다.

“저의 스승 사리불도 계시고 목련과 아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과 목련은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난은 번뇌를 끊지 못했습니다.”

교범바제가 말했다.

“우리 큰 스승께서 모두 이미 열반하셨나, 저도 이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열반에 들었다.

한편 아난은 번뇌를 끊기 위해 정진에 들었다. 여러 날 선정을 이루지 못했던 아난은 어느 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누우려 할 때 드디어

그렇게 하여 아난이 결집에 함께 하게 됐다. 아난이 대중에게 물었다.

“누가 명료하게 율장을 모을 수 있습니까?”

“장로 우바리아입니다. 5백의 아라한 가운데서 계율을 지니기로 제일가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를 정합니다.”

우바리아가 교범을 받고 율장을 모았다. 아라한들이 다시 공사를 가졌다.

“누가 명료하게 교범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아난이 5백의 아라한 중에서 교범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난이 교범을 받아 교범을 결집했다. <<대지도론>> 제2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교법)>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①9



작은 관심이 시든 꽃을 살리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다. 뉴스를 접하고 '너·나'를 떠나 같은 인류로서 마음이 아팠다.

또한 자연의 힘이 그토록 위대한 것임을 새삼 느꼈다.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였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타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모습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황망한 슬픔 앞에서도 주변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침착한 그들의 모습은 본받아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재앙을 겪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라. 혹자는 그런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을 두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을 단순히 '독한 국민성'으로 쉽게 이야기해버릴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이성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히 현장을 수습해 가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갑상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엘 갔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료료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은 단 몇 분의 진료료를 받았다. 기다리는 동안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놓여있는 작은 화분들의 꽃과 식물들을 보게 됐다. 실내에서 오래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시들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환자였다.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보니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그 화분 속의 꽃들과 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다. 필요한 만큼의 물과 햇빛만 주변 되는 것인데, 그 작은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 화분 속의 꽃들과 식물들은 햇빛과 물이 그리워 보였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는 법이 같을 것이다. 햇빛이 그림과 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작은 관심 하나가 시들어 있는 화분과 소외된 이웃에게 크나 큰 힘이 될 수 있다. 콩 한쪽도 나누는 인심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웃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 겉보다 속을 중시하는 세상 돼야

이라고 생각했다. 힘을 때릴수록 서로를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나누는 모습,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는 모습,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각자 솔선수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 큰 재앙을 깨끗하게 버려내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나'와 '우리'를 생각했다. 그들의 그러한 국민성이 '일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했다.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세계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들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아름답다. 팔을 굽힐 수 없을 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지혜처럼, 힘들 때는 '타인의 힘'이 곧 서로를 지탱하고 세우는 힘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 이어지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의 지진 사태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같은 인류로서 박수를 보냈다.

못난이 사과들의 시위

못난이 사과를 사왔다. 흠이 있어 재값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흠을 도려내고 나면 다른 사과들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사과들이다. 모양이 좋은 과일이라면 음당 부처님 전에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사과들은 흠이 있어 부처님전에 오르지 못했다.

못난이 사과를 깎으려고 사과에 칼을 대는 순간, 못난이 사과들이 내게 말했다.

“잠시만요. 우리도 부처님전에 공양물이 되고 싶어요. 상처가 있어 예쁘지는 않지만 우리도 공양물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 못난이 사과들을 불전에 올리지는 못했다. 그 못난이 사과들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부처님전에 공양물을 올릴 때마다 그 때 그 못난이 사과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공양물을 올린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가 우리들 삶에는 많이 있다. 요즘은 특히 겉모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남자는 여자를 평가할 때도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성형이 일반화되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기도 한다. 이제 외모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듯하다. 자신을 가꾸는 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에만 열중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겉'이 아닌 '속'을 중요시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우신, 말 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주오저서: 기도의 비밀, 불교적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dM 카페 카베김석치우천왕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자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